미련하면 등 꼬부라진다

(눅13:10-17)

10.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1.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2.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4.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15.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미련하면 등 꼬부라진다>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미련하다'라는 단어가 본문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 이 미련 곰퉁이 같은 놈아!' 할 때의 '미련'과 '아, 내가 10년 동안 파도 금이 나오지 않은 금광에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할 때의 '미련'은 전혀 그 의미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미련 곰퉁이라고 할 때는 둔하고 미욱한 것을 이야기하고, 금광사업에 미련을 끊지 못하는 바람에 패가망신했다고 할 때의 미련은 집착이나 어리석은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전혀

다른 의미인데, 사실 유래를 보면 같은 데서 나온 단어라는 것입니다.

미련(未練)이라는 말은 아닐 미(未)자에 연습한다고 할 때 그 연(練)자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우리의 상례에서 나온 말입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옛날에는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지냈습니다.
그 3년 중에 1년이 되었을 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소상(小喪)이라고 한답니다.
이 소상이라는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상복이 있습니다, 그 상복의 이름이 '미련'이라고 할 때의 련(練)이에요.
돌아가신지 1년 되었을 때 소상이라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때 입는 상복이 련입니다.
그리고 미련(未練)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미련,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여전히 부모님이 계시던 방문을 열면 '왜 그러느냐?'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도저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마음에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되지도 않고, 계속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미련입니다.

그러므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이 말에서부터,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상황이 마치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집착하는 고집, 이게 바로 '곰퉁이 같은 놈'이라고 할 때의 뜻도 된다는 얘깁니다.
앞의 '미련'은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표현해서 나온 말이지만, 결국 그 말에서 '이 미련 곰퉁이 같은 놈아!'라는 말도 나왔다는 거예요.
왜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느냐? 라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미련을 끊지 못한다는 말도 미련 곰퉁이라는 그 미련도 다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부터 나온 말이라는 얘깁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이 미련을 못 버린, 그리고 어리석은 미련함, 이게 바로 인류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안식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안식을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만족함, 만족함이 생기면서 기쁨이 나옵니다, 그 기쁨의 감정과 감사가 연결이 됩니다.
이런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마음이 바로 행복감입니다.
이 미련, 미련을 끊지 못할 때, 아니면 곰퉁이 같이 미련을 부릴 때 나타나는 일이, 도저히 행복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꼬부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꼬부라져서 허리를 펼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허리를 펼 수가 없으면 어떻게 안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평생 허리를 펴지 못한다고 그러면.
미련을 못 버리거나 곰퉁이 같이 미련을 부리거나 할 때 나타나는 일이 꼬부라져버리고, 꼬부라진 것이 펴지지 않기 때문에 안식이 라는 게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여자'라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꼬부라졌다는 말은 척추가 굽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못 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부탁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스스로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싸움이 붙었습니다.
'18년 동안 앓고 있었으니까 안식일 지나 내일 고쳐도 될 텐데 왜 오늘 꼭 해야만 되느냐?'
주님께서는 그 의도가 안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식이란 무엇인가? 허리를 펴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귀신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데, '귀신들려'와 '꼬부라졌다'고 하는 말 사이에 내용적으로 귀신들려 '미련해서' 꼬부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어졌습니다, 행복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이란 허리를 펴는 것이다, 허리를 펴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육체적으로 꼬부라진 이 여인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이 꼬부라져 있는 것에 비유로 삼으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안식 그 자체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바울처럼 육체에 사탄의 가시를 품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본인이 사탄의 가시라고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안식의 전형적인 마음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꼬부라진 몸의 상태를 주님께서 마음에 임할 안식의 상태로 끌어가기 위한 비유로, '지금 너희의 마음의 상태가 안식이 없는데, 안식이란 뭐냐 하면 마음의 허리가 펴진 것, 마음의 척추가 꼬부라진 상태에서 펴지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몸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허리가 꼬부라졌다는 얘기가 어떻게 미련한 것과 연관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련한 것은 미련을 못 버려서도 그렇고, 곰퉁이 같이 미련을 부리는 것도 그렇고, 다 귀신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들렸을 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죽은 상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에덴에서 쫓겨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되리라고 하는 그 죽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땅에서 기쁨 바깥으로 쫓겨난 것이 사망입니다.
그랬으면, 그냥 내가 죽은 거라고 깨끗하게 인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더 이상 내 마음의 빈 구석을 채움으로써 내가 만족하고 기뻐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는 땅으로 쫓겨난 것이고 이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채워서 만족하고 기뻐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죽음이고 이게 바로 에덴 밖으로 쫓겨난 상태인데, 깨끗하게 죽은 걸로 인정했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살려 주셨을지 모를 텐데, 그리고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회개의 진정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다' 죽은 자라는 것은 마음을 채워서 기쁠 수 있는 내용과 대상이 없는 곳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에요.
깨끗하게 자기가 죽은 것을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말에 설득이 된 겁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뭔가 내 마음을 채워서 기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으로 내용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고 여전히 내 생명에 대해서 아직도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미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사탄의 말을 듣고 미련 곰퉁이 같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살았어, 살아있을 수 있어, 이 땅에서 기쁠 수 있고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일을 내 마음에 담으면 돼!'
그래서 선악을 판단합니다.
내 마음에 채우면 좋을 것이 무엇일까? 아, 화목한 가정, 단란한 결혼생활,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는 국가, 흑자를 남기는 내 사업, 일류대학을 들어가는 내 자식, 이런 모든 것들이 선악을 판단하게 된 상태에서, '아,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면 마음이 만족하고 배부르게 되고, 그 배부름에서부터 기쁨이 나오고 거기서 행복감이 느껴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미련을 떨고 있는 겁니다, 전부 귀신들려 가지고… 죽은 걸 인정 안하는 거예요, 죽은 걸.
다시 말해서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없는 곳으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질 않는 겁니다.
미련을 떨고 있는 거예요, 미련을 끊지 못하고 미련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등이 꼬부라질까요?
참, 이게 묘~ 합니다.
제가 거의 매일 오후에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면서 뭐 꼭 사귀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꼭 인사를 드리게끔 된 할아버지가 한분 계십니다.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길 아래쪽으로 밭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밭에서 일을 하시는 할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산책을 다니다가 그 할아버지께 말을 건넨 것이 이유가 되어서 제가 한 마디를 하면 그 할아버지는 100마디를 하십니다, 귀에 보청기를 꽂으신 채.
그런데 대화를 항상 제가 앉아서 해야 되요, 허리를 못 펴십니다.
올해도 벌써 제 기억으로 상추농사를 지었고요, 쪽파 거두시는 것 봤고요, 그 다음에 열무,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 세 가지를 다 파종하고 거두신 다음 또 무얼 하시려는지 호미를 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그 밭을 다 일구고 계시더라고요.

평생을 그 밭에서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씨를 심고 가꾸고 거두시고, 또 땅을 일구시고…
거 좋은 기계도 많은데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이라서 그런지 호미를 가지고 그렇게 땅을 일구고 계세요.
허리를 못 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지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져와 얘기하자면 왜 허리가 굽습니까?
이 땅에서 내 빈 마음을 채울 선한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땅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고, 땅을 보면서 농사짓듯이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가정을 일구려고 땅을 봅니다, 이 세상이 다 땅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그 하늘과 이 땅이 대비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이 땅에 계신 가정의 화목으로, 땅에 계신 사업의 흥왕으로, 땅에 계신 건강과 미모의 유지로, 땅에 계신 자녀의 엘리트 화(化)로, 땅에 계신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땅만 보고 살다보니까, 이 할아버지처럼 완전히 등이 꼬부라져버린 겁니다.
결국 귀신들려 미련해지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미련을 떨다가, 그 미련함 때문에 땅에서 내 마음에 채울만한 땅에 계신 좋은 것들을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땅에 있는 것들을 평생 찾다보니,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를 못하니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척추가 꼬부라져서 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안식이 주어질 수가 있겠어요?
안식이 뭐라고요?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이에요.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가정의 화목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자들이 가정에서 살아갈 때 화목해지는 거지, 하나님 없이 가정에 있는 가족들끼리 화목해진다고 그게 화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미련 곰퉁이 같은 생각들을 하고 사시는 겁니까?
왜 이 땅에서 기쁠 일이 있을 거라는 미련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느니라,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춰졌다'

'너희가 죽었고'

이 땅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깁니까?

이 땅에서는 내 마음에 채워서 마음에 만족하고 기쁨을 얻을만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땅에서 죽었다는 얘기에요.

내 생명이 어디 있는가 하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조차도, 죽은 다음이 아니라 죽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마음에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미련 곰퉁이 같이 미련을 끊지 못하는 겁니까?

사업이 안 돼서 애달파요? 미련을 끊어요, 사업이 잘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미련을 끊어요, 자식이 공부 잘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 죽음을 인정하세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세요.

이제는 미련 곰퉁이 같이 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분명히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죽은 건데) 에덴 밖에서 자꾸 살아 움직여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려서 그래요.

귀신이 그랬거든요, 에덴 밖인데도 '너는 죽은 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려면 내 마음에 뭔가 빈 구석을 채워 넣어야 된다, 이 세상에 채워 넣을 게 많잖아? 얼마나 좋은 게 많아? 마음에 채워 넣으면 기쁠 게 얼마나 많아?'

이게 바로 마귀사탄의 역설에 우리가 완전히 넘어가버린 거라는 얘깁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뭔가 좋은 일,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들린 겁니다.

미련 곰퉁이 같은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이고, 아직도 미련을 끊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의 등이 꼬부라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너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을 보고 너희의 죽음을 인정해라’
마귀에게 꼬임 받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삶을 십자가에서 죽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귀신들려 미련한 상태를 십자가로 깨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면 이제는 내 마음에 채울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인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안식을 얻었느냐? 그러면 가정으로 가서 가족원이 되고, 회사로 가서 회사원이 되고, 애인 만나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가정도 꾸리고, 매일같이 우리의 죄적 체질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이 미련함, 귀신에게 설득되어 이 땅에서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미련함을 십자가로 떨쳐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안식을 누리라, 위에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느라 허리를 구부리고 있지 말고 허리를 쭉 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성령께서 하늘을 실감나게 현실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에덴 밖에서 죽은 자임을 깨끗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내 마음을 채울 기쁨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뿐인 것을 인정하며 기다리게 해주셔서,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허리를 펴게 해주시고 다시는 허리를 굽혀 땅에서 내 마음을 채우는 기쁠 거리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